

외국 대학에서의 학부 경험 사례에 대한 연구

특집

김준성*

서울대학교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외국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경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특성화 연구 과제로서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이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경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울대학교의 교육을 제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외국 대학에서 다른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의 사례는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태도와 수준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교수자에게 자신의 강의를 평가하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셋째, 서울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기초 교양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 대학의 교양교육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번 연구는 실제 교육에 참가한 학생 및 교수자의 구체적인 평가나 제안을 포함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위해서 우선, 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등의 자격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학부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경험 사례기를 공모하였다. 사례기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강좌를 수강한 학교 및 학과의 이름, 강좌의 내용과 특성 및 수준, 평가 방법(시험, 리포트 기타 과제), 강좌의 진행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센터 선임연구원

특집 | 외국 대학에서의 학부 경험 사례에 대한 연구

과정과 방법, 담당 교수의 강의 방법과 내용, 학습 과정과 방법, 수강 중 흥미롭거나 힘들었던 경험, 담당 교수와의 관계, 교우 관계 등이다. 총 31편의 글이 제출되었고 21편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글에 담긴 정보의 참신성과 구체성에 초점을 두었다. 참신성은 국내의 대학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차별성이다. 또한 국기와 전공을 고려하였다.

학생들의 경험 사례 분석 결과

선정된 학생들의 사례기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물론 분석을 위한 사례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수업의 내용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이 모든 수업의 공통된 내용을 담는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분석을 토대로 다른 여러 수업의 방법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

첫째, T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TA는 단순히 교수의 수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다. TA는 수업시간과 별도로 마련된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자세한 지도와 조언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둘째, 수업에서 토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토론은 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진행되는 토론뿐 아니라 많은 수업에서 토론이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세미나 또는 튜터리얼(tutorial)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고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셋째, 수업에서 리포트 등의 글쓰기 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에 글쓰기는 토론·발표와 함께 진행된다.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주고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리포트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수자는 최종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글쓰기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표절 등 글쓰기의 윤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다.

넷째,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의 발표나 리포트를 동료 학생들이 함께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여러 번 시행되는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의 매과점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일부 대학에서는 학제간의 교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공학 분야를 연결하는 교과목이 개설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현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교과목마다 목적과 기대 효과가 분명하고 차별화된 수준을 가진다. 예를 들어, 기본 교과목은 학문 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문 연구를 위한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수업 내에서 보다 심화된 연구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된다.

일곱째,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교수자와 학생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수업은 단순히 교수자와 학생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다. 담당 교수와의 상담이 일상화되어 있고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은 많은 도움을 받는다.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제안

이 분석을 토대로 서울대학교의 교과목과 수업 방법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핵심교양 과목에서 TA가 맡는 학생의 수를 현실화시켜야 하고 별도로 TA와의 토론시간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도 TA를 배정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과 학습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학습자의 태도는 교수자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토론 수업을 무조건 권장하기보다는 먼저 토론 수업의 목적·방법·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 대학과 학내 토론 수업의 현황과 내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교수자 스스로 수업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대학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수업이 일방적인 강의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자유로운 토의 문화가 보편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이런 문화는 단기간 내에 일반화될 수 없다. 교수자와 학교의 노력에 달려 있다.

넷째, 학생들의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리포트에 대한 담당 교수의 피드백이 적다는 것이다. 담당 교수와 조교들은 학생들이 초고를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글쓰기교실 등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다섯째, 교수자들이 담당 과목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 학생들도 수강 과목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임하지 않는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그 수업을 왜 수강해야 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학제간의 연계 수업과 수준별 수업을 고려해야 한다. 학부 교육의 목적은 심화된 연구를 할 수 있고 지식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학제간의 연계 수업은 종합적인 사고와 폭넓은 관점을 갖게 한다. 탁월성과 잠재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 대학의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 학습과정(honor course)이 한 예이다.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수준별로 학생들을 나누어 튜터리얼 수업을 고려할 수 있다. 